

2007 CEO 안전관리 혁신포럼 개최

— 2007. 4. 18 ~ 20 / 제주도 —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회장 김 봉 균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많이들 바쁘실텐데 기꺼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전기제품업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박 3일간의 일정동안 전기·전자업계의 책임자로서 "2007 CEO 안전관리 혁신포럼"에 임할 것이며, 국내 전기전자산업의 안정성 제고는 물론이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제품안전에 관한 화합과 토론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협회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 전기전자

계의 진정한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업계대표자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제품세상"을 이끄는 주역이자 책임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협회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 위주의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금번에 "CEO 안전관리 혁신포럼" 개최한 것을 기회로 앞으로 더욱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분야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방 일변도의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제품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 제주에서 같이 자리한 40여 업체의 기업대표님들과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귀사의 발전과 나아가 국내 전기 전자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CEO안전관리혁신포럼 강연



①



②



③



④

● 본 행사의 대주제인 “제품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강연들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국제적 수준의 제품안전관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 강연 연사 안내
- ① 기술표준원(최갑홍 원장)
- ② 중소기업중앙회(장지중 부회장)
- ③ 국제무역연구원(현오석 원장)
- ④ 흥혜걸 기자

● 인증기관과의 만남



- 포럼 일정 중 ‘인증기관과의 만남’을 마련하여 현재 국내 인증시장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또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 2007CEO안전관리혁신포럼 폐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곳 제주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2007 CEO 안전관리혁신포럼”은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중에 업계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참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2박 3일간의 행사를 치르면서 전기·전자 업계의 무궁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업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행사일정 가운데 우리는 주옥같은 강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표준원장의 제품안전정책의 현주소와 전망,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중 부회장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 국제무역연구원장의 한미 FTA평가와 대응책, 홍혜걸 기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우리의 현주소와 과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관한 강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급선무인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전기·전자업계도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도전 속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업체 대표님, 그리고 인증기관장님, 그 외 이 행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각 분야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비전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 개인도, 우리 업계도, 이 나라도, 나아가 세계무대가 우리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우리들의 행사는 오늘로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